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목차

프롤로그,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04

자유

게임 여행 09
따끔거리는 마음 11
나와 25시, 나이트 코드의 구원 이야기 13
과일 씹는 맛이 나는 봄동과 추억 19
내 꿈은 캐릭터 디자이너 21

내일

방에서 예술하기 25
새끼 오리와 블랙핑크 27
守吾業 - 나를 지키는 일 29
우리가 만드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33
5월의 일기 35

로즈

2년 반만의 선택 39
외로운 게 나올까 40
열림터 수업을 마치며 42

프롤로그,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우리는 매주 수요일 7시에 만나 글을 썼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일은 어딘가 힘든 구석이 있었다.

주어진 글감들은 상처를 떠올리게 했고, 그에 관하여 쓰는 일은 어느 정도 아픈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일인지도 몰랐다.

“쓰고 싶지 않은데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유 선생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내주어야 했다. 그녀가 쓴 책(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을 읽으며 우리는 여성의 노동,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 울컥 삼켜야 했던 말들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써 내려간 글들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다.

10주 동안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함평하면서 우리는 글쓰기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1. 말하기보다 보여주기

추상적인 상태를 서술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쓰기는 독자가 더욱 선명히 감정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내일은 자신의 방에서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이층 침대의 1층에는 우리 학교 마스코트 인형인 사자 인형과 빨간 줄무늬 이불이 있다. 인형과 잘 어울리는 빨간 색상의 이불이다. 침대 옆 창문 난간에는 디퓨저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지는’ 노란색 직사각형 부적이 있다. 코가 건조한 내 몸을 위한 가습기도 항상 책상 옆에 있다. 밤에 욕실에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빨간 줄무늬 이불을 덮고 가습기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작은 행복이다.

이 글 덕분에 나는 내일의 방이 얼마나 그녀에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방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2. 거리 두기

스스로를 멀리서 보는 연습을 통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열림터를 떠나는 것도 약간 아쉽긴 하지만 따로 나가 살면서 내 마음을 편히 달래고 싶다. 물론 일을 하는 행위를 그만둘 생각은 아니다 내 꿈을 위해서 돈을 계속 벌어서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일 자리를 알아보겠지.

지유는 직장 내 따돌림을 겪으면서도 일하는 행위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그 일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유를 쓰러트리지는 못했다.

3. 다시 쓰기 (변주하기)

그렇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번 다르게 말하고 써보는 것은 중요하다. 글을 쓰는 이는 변화무쌍하며 결코 고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로즈는 열림터에 입소한 첫 소감에 대해 이렇게 썼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졸림 반 두려운 마음이 반이 담긴 멍한 상태로 길을 나섰다.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발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길을 불안함과 씩씩함을 느끼며 내디뎠다. (...)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로즈가 퇴소하고 난 뒤 이 글은 어떻게 다시 써질까? 지금은 두려움에 대해 길게 서술했지만, 이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던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쓰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로즈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변주될 수 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우리의 삶은 고정되지 않기에 다채로운 주제
의 글들이 엮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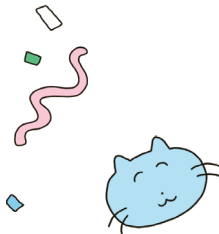
행복과 슬픔을 넘나들며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은 삶을 긍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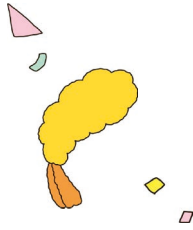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 사무치던 경험, 힘들 때 생각나는 소중한 존
재들에 대해 썼다.

할머니의 봄동 무침과 편의점 삼각김밥,
500원짜리 동전 2개와 빨간색 파란색 버튼들,
한티역과 교대역 사이의 모든 카페,
추운 겨울밤 담요를 감싸고 있는 것,
존중과 이해. 신뢰와 사랑.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들이 있다.

열린터 활동가 상아





게임 여행

나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딱 한 곳이 있었다. 바로 2018년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한 ‘대구 동성로 가차샵’이다. 이곳은 여러 가지 뽑기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애니메이션 ‘프리파라’의 리듬 게임기가 있는 곳이어서 그 당시 프리파라를 좋아했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프리파라는 일본의 타카라 토미아츠와 한국의 동우가 협동해서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었고 그 당시 바쁜 아빠의 가게를 뛰쳐나가서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게임이었다.

물론 가차샵에 가서 게임을 하면 줄 서는 것에 시비를 거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컬렉션을 많이 모은 멋진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쭐해지기도 했다. 게임을 하면서 코드를 모으는 재미로도 했기에 예쁜 마이 캐릭터에 예쁜 의상들이 많았던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동경 비슷한 존재였던

것 같다. 500원을 2개 넣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하고 싶은 곡을 초록색과 파란색 버튼을 이용해서 고르고 리듬에 맞춰서 세 개의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가차샵에서만큼은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 있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그 어떤 곳에도 비교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게임이 끝나고 원하는 코디가 나오지 않을 때는 “에라이”라고 중얼거리며 한 번에 연속으로 쇼핑했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대구가 아닌 곳으로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구 동성로 가차샵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이대로 프리파라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구가 아닌 서울, 부산, 대전 등등으로 이동해서 게임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청소년기에 떠나고 싶다는 마음만 컸지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정말 큰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대구에서 벗어난 그때의 나를 칭찬하고 싶다. 게임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간 여행이 어찌 보면 대구에서 벗어나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든 거니까. 현재의 나를 만들어 준 이 추억의 게임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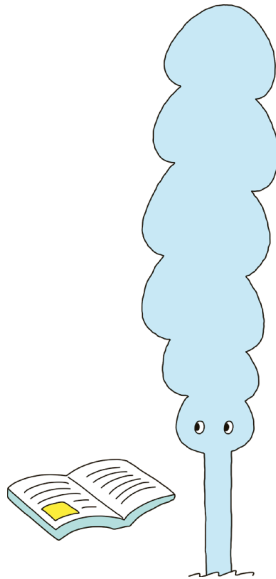
따끔거리는 마음

따돌림이란 참 무섭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이래저래 처음인지라 일을 잘 못할 때 한 스텝이 시비를 걸다가 결국에는 내 질문을 씹는 지경까지 왔다. 무슨 말이 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스텝들과도 서먹해지기 시작했고 한동안 약 없이는 미쳐버릴 정도가 되었다. 울음이 나왔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내가 신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포기하고 싶어졌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 왜 이런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래도 버티고 있었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어찌면 사는 것 자체가, 아니... 누군가에게 미움받으면서까지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심적으로 죽어가는데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소용이 있는 거겠냐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역이용하라 했던가. 그렇게 내린 결론은 내 아픔을

드러내서 나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곳은 어쨌거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다니는 센터니까. 그렇게 딱 2개월 동안만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어찌어찌 버티고 버텼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열림터를 떠나는 것도 약간 아쉽긴 하지만 따로 나가 살면서 내 마음을 편히 달래고 싶다. 물론 일을 하는 행위를 그만둘 생각은 아니다. 내 꿈을 위해서 돈을 계속 벌어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나와 25시, 나이트 코드의 구원 이야기

요즘 스토리와 음악을 동시에 녹여 넣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 깊숙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가 가장 동경하는 게임인 프로젝트 세카이의 노래들을 소개해 보자 한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게임의 기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게임에는 오리지널 캐릭터 20명과 버추얼 싱어라는 크립톤 퓨처사에서 개발한 음악 작곡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캐릭터 6명이 등장한다. 더욱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 버추얼 싱어들이 오리지널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그룹마다 마음의 세카이라는 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존재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전개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 이벤트 스토리, 유닛 스토리들을 보니 그저 그런 서사가 있고 그저 그런 노래로 감동이란 것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나에게 있을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부분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작곡이 굉장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고 그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말해보고 싶다. 하나는 25시, 나이트 코드에서 하먼 떠오르는 대표곡인 버그다. 곡 버그가 수록된 이벤트는 ‘미아의 손을 잡아끈, 그 앞은’이다. 내용은 이렇다.



모의시험이 다가오는데 “엄마는 이번 결과도 기대하고 있단다.”라는 말에 자신의 진짜 마음을 계속 눌러놓기 시작한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도 한때 마음의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한 적이 있었다. 사실, 무서웠다. 버려질까 봐 무서웠다. 내 마음도 이런데 이 스토리의 마후유는 어떠할까. 마후유는 엄마에게, 나는 아빠에게 자칫 잘못해서 버려질까 봐 무서웠다. 작 중에서 마후유는 방황하다 어떠한 장소에 자신도 모르게 도착한다.

그곳은 어릴 적 마후유의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던 ‘피닉스 윈더랜드’라는 놀이공원이었다. 피닉스 윈더랜드의 마스코트인 ‘페니 군’과 악수하고 싶었던 마후유는 엄마의 기다리라는 말을 어기고 자리를 벗어났다. 악수 후 돌아왔더니 엄마는 없었고 그 당시 마후유에게 윈더랜드는 전혀 반짝거리지 않은 무서운 장소가 되었다. 이후에 엄마와 재회했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한 가지 마후유에게 물어봐도 될까? 어째서,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들은 거야? 떨어지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했었지? 엄마는 말이야, 마후유가 사라져서, 정말 무서웠어. 마후유가 엄마 말도 듣지 않는 나쁜 아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서…”라는 아이를 질책하는 말뿐이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마후유가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깊숙이 보면

마후유에게 착한 아이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어린아이가 그저 엄마가 전화에만 집중해서 놀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했던 그 행동을 나쁜 아이가 할 만한 짓이라고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 현재의 마후유가 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놀이공원에 갔던 이유는 정말 그날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연출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그날을 기점으로 마후유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갈 곳을 잃은 아이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모의고사 시험장에 어서 가지 않으면…”이라며 생기를 잃은 채로 중얼거리다가 멤버들과 만나고 마후유는 멤버들의 조언에 따라 같이 피니 랜드 (피닉스 원더랜드)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놀기로 했다.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놀다가 세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후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그날 엄마의 손이 차가웠다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엄마가 마후유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후유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의심했다. 그 순간 눈에 보였던 것은 길을 잃은 아이와 그 아이와 재회하여 다정하게 안아주며 말해주는 아이의 어머니.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상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대화가 다르단 것에 위화감을 가진 마후유로 이 스토리는 끝이 난다. 그리고 공개된 곡은 ‘버그’, 마후유의 심경을 나타낸 곡이었다. 노래 가사를 보면 ‘미아, 미아 한가운데에서’, ‘삐걱삐걱 나의 마음 가지치기’, ‘되로 되로 꿇었어 뒤엎혔어’, ‘슬피 슬피 옆드려서 텅

비어'라는 말은 길을 잃은 미아인 상태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주었다. '재능'과 '태그', 그리고 감정을 벗겨내서 발병인 '괴로워'는 싫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마후유의 고통을 나타내주었다. 이 가슴 아픈 노래 가사는 아빠와의 법정 싸움에서 지쳐갈 때마다 나를 응원해 주었다. 꼭, 고통의 반을 가져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노래는 최근에 나온 '우리들의 생존 도주' 이벤트에 수록된 '키티' 다. 우리들의 생존 도주에서 아키야마 미즈키는 마후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도와주고자 했지만 결국 마후유는 노트북과 작곡에 필요한 것들을 빼앗겨 버렸다. 그 상황에서 세카이에 가서 자책하고 있던 미즈키에게 루카가 말을 걸었고 도망치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도 못한다는 미즈키의 말에 루카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그래, 미즈키는 되게 겁쟁이구나. 그렇지만 그런 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니? 미즈키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주 보는 것에서 계속 도망쳐 왔던 그런 미즈키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사고방식을 바꿔보면 되는 거야. 지금 마후유는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자신의 문제와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야. 그게 힘겹고 괴로운 일이란 것... 미즈키, 너라면 알고 있겠지."라고. 과거 미즈키는 자신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사라질 것만 같아 학교로부터 도망쳤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미즈키는 이 '도망

침'을 마후유에게 알려주고 싶어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한 뒤, 저녁 시간이 되고 마후유에게 미즈키는 말했다. 자신이 학교에서 도망치게 된 것과, '도망침'의 의미를.



“있잖아, 마후유. 나는 생각해. 살기 위해서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마후유처럼 괴로운 일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채면 에너지가 없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버려. 괴로운 채로 지내다 보면, 지쳐서, 힘들어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 물론 도망치는 것을 계속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문제 그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엄청 힘들고, 망가질 만큼 괴롭고,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버릴 것 같은 때에는 도망친다는 수단도 있어. 도망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도망치고 싶다면 그곳으로 와.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무도 없는 세계로.”

이 멋진 말들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마후유에게도, 센터에서 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도 치료해 주었다.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도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가. ‘키티’라는 곡의 가사에서 ‘달아나는 것과 눈을 돌리는 것, 어디에 가치가 있는 걸까? 그저 여기서, 문답, 명상. 그럼, 우뚝 서도 빠곳. 자 점과 점을 잇는 것처럼.’이라는 가사는 미즈키와 마후유가 도망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주었다. 눈을 돌리는 것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달아나는 것은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 두 이벤트 스토리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다.’라는 것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괴로움을 눈치채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 도망치고 싶거나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을 때마다, 오늘도 나는 이 장르를 통하여 구원을 바라고 구원받는다.



과일 씹는 맛이 나는 봄동과 추억

과일 씹는 맛이 강한 음식을 아는가? 씹으면 달달한 맛이 은은하게 도는 이 음식은 김치의 미니 판이자 옛날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는 흔하면서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봄동이라는 봄 제철 음식이다.

봄동은 과거 1970년도에 사람들이 즐겼지만 그 이전에 봄동 무침은 현재의 봄동과는 매우 다른 재료로 쓰였다. 예를 들면 배추의 남은 이파리를 가져가 무쳐 먹거나 이따금 그냥 먹기도 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봄동은 개량종이니까. 개량되기 전까지 먹었던 배추무침은 과거에 굵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고 허기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이런 귀한 음식을 내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의 음식상 앞에서였다. 그저 김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맛봤던 음식은 외할머니에게는 좀 특별했던 모양이었다. 외할머니께서 내가 봄동을 좋아하게 된 것을 눈치채신 건지 여러 종이 묶음을 들고 와서 작

은 붓으로 한자를 섞어서 쓰기 시작하셨고 어른들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걸 뒤로 한 채 몰래 봤더니 그 종이 묶음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의 이름들과 그 음식의 요리 방법이 적혀있었다. 물론 한자가 적혀있는 부분은 내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한자가 아닌 부분들은 읽을 수 있었기에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물어보고 난 뒤 엄마의 표정은 약간 여러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다. 잠깐 엄마는 생각에 잠기더니 나에게 말했다. 외할머니는 봄동을 통해 먼 옛날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거라고. 어쩐지 외할머니께서 적어놓은 레시피에도 건강과 같은 말이 많이 적혀 있었다. 개량종으로 나왔던 봄동을 보고 예전에 굶어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보다니 여러 생각들이 겹쳐서 들었다. 그 당시 외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도 그저 음식으로만 보고 있었던 내 생각이 그저 어리석었다는 것까지. 좋아하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생각이 나에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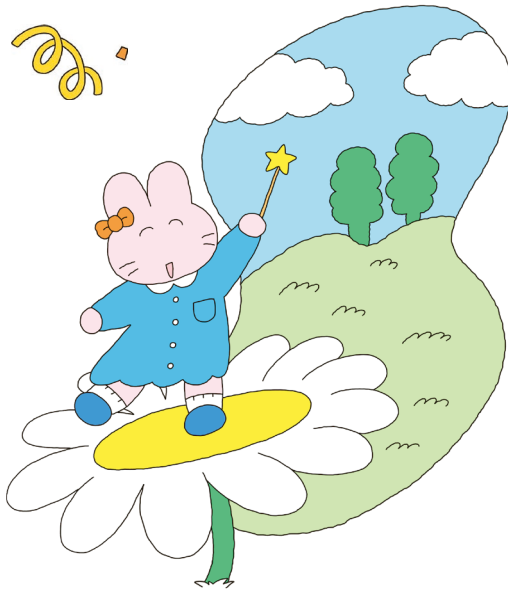


내 꿈은 캐릭터 디자이너

캐릭터는 참 다양하다. 각각의 특성과 설정 요소들이 매력을 더해 캐릭터를 의미 있게 만든다. 그 매력들을 만들어 내는 포인트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의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 신데렐라의 디즈니 영화판에서 신데렐라가 입은 드레스는 사람들이 “아 애가 신데렐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표현해 놓았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에서 입은 의상은 유리구두 그 자체였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라이트노벨 삽화가로 자주 얼굴을 비치는 스즈노스케님은 동화를 비트는 것에 유명한 히토시즈쿠 야마님의 의뢰를 받고 계속 일러스트를 그리셨는데 곡의 주제에 맞게 확실 명확하게 캐릭터의 의상을 디자인하셨다. 적과 백과 흑 계보의 일러스트를 맡으셨을 때는 그야말로 “아, 이 노래가 백설 공주 스토리를 비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디자인을 만들어 내셨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 공주의 외관이 다른데도 색의 배치와 디자인의 상세함이 백설 공주임을 표현한 것이다. 자세한 스토리와 디자인이 다 공개되면서 이 작품의 의도를 뺏속까지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 의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캐릭터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내왔다. 스즈노스케님 처럼 당당한 디자인을 내고 싶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금의 나는 스즈노스케님을 뛰어넘는 한국계... 아니, 세계적인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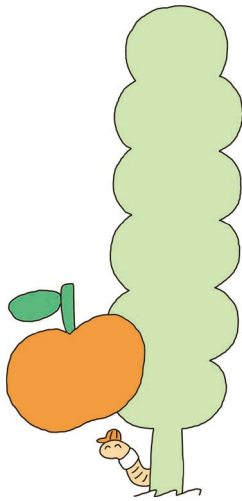
방에서 예술하기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장소는 내 방이다. 나는 귀소본능이 꽤 강력한 사람이다. 바깥에서 학교생활을 할 때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꽤 간절해질 때가 있다. 내 방은 내가 고른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안에 있는 이불, 옷, 화장대, 책상 모두 내 손길로 관리된 것들이다.

학교 과방이나 동네 카페같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고 타인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보다 내 방이 나에게 훨씬 편안함을 준다. 2층 침대의 1층에는 우리 학교 마스코트 인형과 빨간 이불이 있다. 인형과 잘 어울리는 빨간 색상의 이불이다. 침대 옆 창문 난간에는 디퓨저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지는’ 노란색 직사각형 부적이 있다. 코가 건조한 내 몸을 위한 가습기도 항상 책상 옆에 있다. 밤에 욕실에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빨간 이불을 덮고 가습기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행복이다. 집에 귀가해서 침대에 눕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에게는 매일의 의식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편안해지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누군가 말하길, 예술은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게 맞다면 내가 방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아마 곧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방에서 나는 자유롭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혼자 말도 안 되는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안정은 타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 편안한 자세로 마음껏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것 같다. 내 방이 나에게 최상급 이너피스를 제공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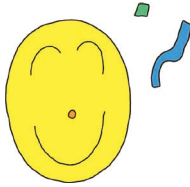
새끼 오리와 블랙핑크

월요일과 수요일은 12시 수업이 있는 날이다. 학교까지는 넉넉잡아 1시간 30분이 걸린다. 9시쯤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학교 갈 때 입을 옷을 골라 입는다. 편한 옷을 좋아하는 나는 항상 청바지 아니면 트레이닝 복을 선택한다.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묶은 다음 집게 핀으로 고정한다.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귀에 에어팟을 꽂고 그날 마음이 가는 노래를 듣는다. 요즘은 블랙핑크나 아이브의 노래를 주로 듣는다. 당차고, 활기차고, 자신감에 찬 노래 가사가 마음에 든다. 아이브 신곡 'I AM'의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와 '너는 누군가의 Dream comes true'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 역사 내의 꽃집과 빵집을 지난다. 빵집에서는 항상 똑같은 맘모스빵과 카스테라, 초코 베이글을 굽는다. 꽃집에도 늘 비슷한 종류의 꽃들을 판다. 열차를 타면 가는 동안은 주로 유튜브를 본다. 최근 며칠 간은 블랙핑크의 코첼라 공연 영상을 보는 것에 빠져 있다. 코첼라는 미국의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번 코첼라에서는 블랙핑크가 한국 최초로

헤드라이너로서 공연을 한다. 무대 영상 속의 블랙핑크는 환호 속에 둘러싸여 멋있고 당당하다. 가장 본인다운 모습을 갖고 댄스했다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화면 속에서 눈을 떼지 못하겠다. 영상에 몰입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심심할 때 새끼 오리 영상을 본다.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에 각인이 돼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귀엽다.

가장 완벽한 본인 모습의 정수를 축제에서 선보이는 블랙핑크와 천지 분간 못 하고 무리 지어 다니는 새끼 오리 영상을 보고 지하철에서 내려 걸으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 나의 상태는 아마도 새끼 오리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가꾸지도 않았고 자신다운 것을 찾지도 못했고 멋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따라 하기 급급한 상태. 하루빨리 나의 모습을 나답게 정돈하고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일반적인 '나답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태초 그대로의 상태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자유의지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나답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나다운 건 뭘까? 무절제에 휩싸여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편한 대로만 사는 것이 나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의 좋은 것만 좇으며 끊임없이 고행하는 것 또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이든 중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다움'을 '절제'와 '방임'의 사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제법 긍정적이고, 발랄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귀차니즘이 심하고 게으르고 충동적이라는 단점 또한 있는 사람이다. 5월은 아마 나다운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행복을 느끼는 봄이 될 것 같다.



守吾業 - 나를 지키는 일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직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말을 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SKY 학부에 진학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라이선스를 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공부량과 시간 투자가 요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호사가 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 첫 번째의 이유가 나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일단 변호사는 나의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이다. 나는 사건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어떤 일이 사리에 맞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 글을 조리 있게 쓰는 것에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 이 같은 나의 적성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서면을 잘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자신의 자아를 잘 지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나의 감정 세계의 안녕을 지키는 것과 직

결된다. 한편으로 흔히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배움이 짧고,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위법행위를 당하고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 작성부터 금전적 부담이 든다. 고소인 의견서를 비롯한 세밀한 법적 절차는 말할 것도 없다. 나도 시설에서 지낼 때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다. 그럴만한 경제력만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경제력과 지지체계가 없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개인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포착해 증거나 정황을 수집하기도 용이하다.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만으로도 일차적으로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법을 알고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만으로도 사람들은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자칫 자신에게 해가 될까 염려돼서가 그 이유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면 최소한 자신의 권리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전문직이다. 요즘 시대에는 한가지 직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학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애주기 동안 3~4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배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라이선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회사원처럼 50대 때 책상을 빼야 하지 않고, 평생 밥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

호사라는 굵직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면 칼럼니스트, 작가, 정치인 등 다른 직업에 진출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붙는다. 나는 글 쓰는 것을 꽤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와 칼럼니스트에도 관심이 있다. 정치에도 뜻이 있다. 유명 정치인들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라이선스는 정계 진출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다수 앞에서 떨지 않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말을 잘하고, 기존의 낡은 규칙을 건디지 못하는 나의 성향이 진보성향의 정당 정치인과 가깝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내가 겪어온 삶들도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부차적으로 선택할 것이건 간에 어쨌거나 나에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문자격증’이 나오는 직업인 변호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셋째,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일단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로펌에 입사할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판사 임용에 도전할 수도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직장인이 될 수도,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로펌을 차려서 성공하면 밑에 변호사들을 두고 회사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고, 잘 안되면 다시 직원 변호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변호사는 스스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다. 보통은 한 가지의 선택을 하면 다시 선택권이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한 라이선스로 인해 더욱더 많은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 역시 다른 직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변호사라는 직업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SKY 학부에 진학하기 위해 반수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되면 자격증이 나온 이후에도 변화하는 판례를 끊임없이 알고 공부해야 한다. 쉬 없는 배움의 직업이다. 잠깐 바짝 노력하고 평생을 이득 보려는 생각은 접어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반수 준비를 하는 동안 매사에 치열하게 노력하고 최대치를 하려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습관을 인생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의 내 노력이 변호사가 되는 데에 결정적이고 효과적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만드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내가 생각하는 우정은 ‘서로 닮은 사람들 간의 선한 관계’이다. 나에게서 우정 하면 생각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와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백예린과 허윤진을 좋아하는 비슷한 음악취향, 삼각김밥과 컵누들을 자주 같이 먹는 식습관, 아픈 구석이 많은 가정환경이 그렇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친구와는 서로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외국에 가 있어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다. 서로 생활 반경이 같았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이었고 이후에 나는 경기도로 전학을, 친구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면서 물리적인 거리는 속절없이 멀어졌다. 그런데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네이버 메일이나 카톡으로 꼭 연락했었다.

친구와 나는 둘 다 따뜻한 양육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환경으로 둘 다 힘들었고, 어린 나이에 감정적인 자극에 연약하고 민감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겪는 아픔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유년기의 나는 넓은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진 느낌을 항상 느꼈다. 아

마 그 친구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런 공통점이 우리의 동질성을 만들고 우리를 묶어주었던 것 같다.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는 내 가슴 한편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친구와 본격적으로 만나고 친해지게 된 건 21살 때였다. 같이 대치동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몸이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대치동 사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같이 대입하고, 대입 결과를 기다리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몸만 컸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친해지는 데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았다. 다시 가까워지는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만남의 장소는 인근 카페였다. 카페에서 우리는 남이 들었다면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했다. 서로에게만큼은 약한 부분을 내보여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다. 1주일에 4번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 사람과 그렇게 많이 만나면 질릴 법도 한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았다. 한티역과 교대역 근처의 거의 모든 카페를 섭렵했던 것 같다. 만남은 항상 자연스러웠고 즐거웠다. 비싼 걸 먹지도, 특별히 재밌는 걸 하지도 않았는데 편의점 삼각김밥과 카페 음료 한 잔이면 모든 게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비슷한 종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친구이다. 그리고 아픈 기억에 삶의 속도가 더뎠고 너무 많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내 친구의 연약함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한다. 우정을 영어로 하면 Friendship. 우리의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5월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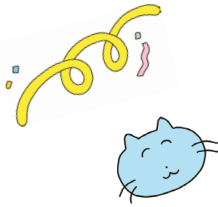
요즈음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두려움과 치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나에게는 관성이 있다. 나쁜 걸 알면서도 나쁜 걸 고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괴로운 생각에 침전되어 가라앉아 헤어나오지 못하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 혼자 생각만 하다가 할 일 못하기, 괜히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음식 먹기,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할 일 미루기 등이다. 나쁜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건 자신에 대한 방임이라 했다. 진짜 자신을 존중하면 관성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왜 그것이 나에게는 이다지도 어려운 것일까.

오늘은 학원에 방문 상담을 하러 갔다. 반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에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앞섰다. 괴롭고 고달팠던 작년의 입시가 떠올랐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괴로움에 잡아 먹혀 공부를 이어 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거의 들지 않았다. 동시

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모순적인 마음도 들었다. 용기란 두려움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의 도전은 안 되는 걸 무모하게 시도하는 만용이 될 것인가,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될 것인가. 무엇이 용기이고 만용인지는 결과가 결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정이 결정하는 것일까. 내가 올해 하반기의 시도를 통해 내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공부에 대한 불안함을 스스로 기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부서짐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용기일까?

최근에 읽은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 추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요즈음은 내 인생도 그렇게 느껴진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지극히 단순하게 본다. 욕망이 빠르게 충족된 상태가 행복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고통이라는 것이다. 욕망을 채워도 결국엔 권태가 다시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다. 요즈음 나는 철학책이 두렵고 사유가 두렵다. 너무 깊은 생각에 스스로 잡아먹힐 것 같기 때문이다. 인생을 가볍고 담백하고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반수를 결심한 선택이 내 인생의 나머지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선택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선택 이후에도 다시금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2년 반만의 선택

2023년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졸림 반 두려운 마음이 반이 담긴 멍한 상태로 길을 나섰다.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발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길을 불안함과 씩씩함을 느끼며 내디뎠다.

낙타쌤에게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여줄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과거는 내 아픔이다. 아픔은 왜 반복되는가? 수없이 내게 질문하고 또는 자책했다. 감정이 생각을 지배했던 시간, 외롭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온 나 자신을 마주 보며 위로한다.

외로운 게 나올까

평소와 같은 맑은 어느 날이었다. 오늘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우리 집은 부모님의 의견 대립이 시작되었다. 욕심 가득한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다.

싸움이 극적으로 다다를 때 중재 역할을 맡는 사람은 내 뒤통이었다.

점점 극대화되기 직전 나가보면 부모님들은 서로 자기편을 들어달라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집안에 물건이 날아다니고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는 구도가 생긴다.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 약자와 강자만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강자를 달래고 있을 때 약자는 뒤에서 약 올리고 있다.

하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다다를 때 서로의 감정이 식어가고 1차전은 끝났다.

내 머릿속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고 마음은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공허함이 가득해진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고 기대고 싶은 건 남자친구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친구는 항상 해결점이 없는 해결답안만 늘어놓고 남자친구의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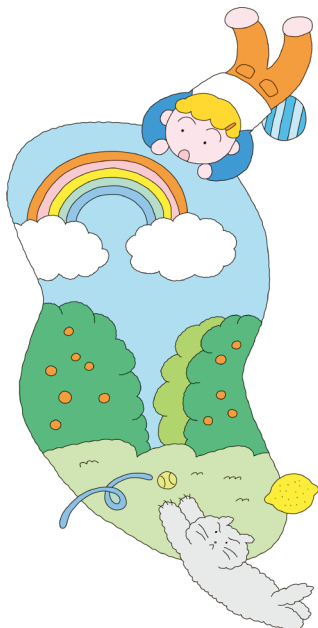
애석하게도 내겐 힘들 때 찾게 되는 사람들은 날 더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만드는 존재였다.

기댈 곳이 필요해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정말 나를 좀 누가 구해줘...

난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줬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걸 난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픔이었다....

차라리 외로운 게 나을까....

난 왜 항상 고통받아야만 하지? 라는 고민을 항상 되묻는다.



열린터 수업을 마치며

권누리 시인의 ‘하트*어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흰 발목 양말이
흘러내려요 걷다 멈춰 서고, 다시
그걸 반복해요 왼쪽이 그러면 오른쪽이 그러는 것처럼
나란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내일이 그러나

이미 사랑하고 있답니다 사랑을
나에게 스스로 말할 용기는 없지만,

걸어가도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천천히
타들어갈 텐데요 빛이 빛을 부수는 것처럼.

미안해하는 나를 상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물으면 나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사랑에는 제법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시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늘 꽃히는 구절은 있지요. 저는 ‘하지만 사랑에는 제법 재능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와닿았답니다. 이 시를 읽을 즈음, 열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대들이 쓴 소소한 일상을 보면서 느낀 감정의 실체를 저 구절에서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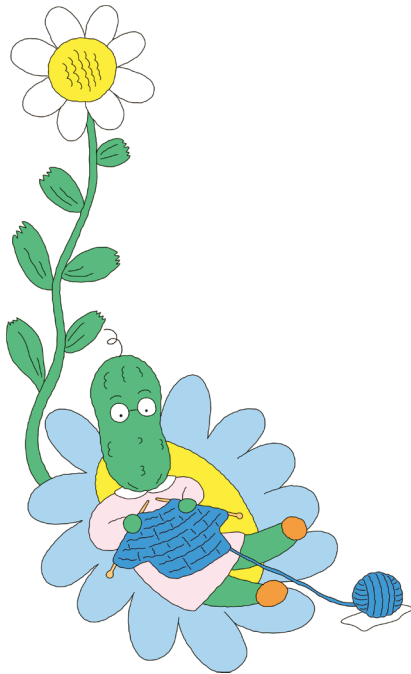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좋아하고 게임을 즐기는 등 자기가 행복해지는 자리를 잘 아는 지유도, 변호사가 되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뚜렷한 전망을 가진 내일도 저에게는 ‘자기 삶을 사랑하는 재능’이 있는 멋진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물론 자신만의 방에서 하루치 피곤을 달래고 위로받고, 봄동 나물을 추억하는 작은 이야기도 무척 소중했구요.

뒤늦게 합류한 로즈는 이름처럼 진한 향기와 존재감으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지요. 로즈가 오고 나서 지유의 표정이 환해진 것 느끼나요? 동료로 사랑하는 재능을 가진 로즈는 글쓰기가 재미없다고 했지만, 아마 계속 쓴다면 누구보다 더 멋지고 에너지 넘치는 글을 써 내리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외로운 게 나을까’ 하는 고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타인에게 가닿으려는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글을 잘 쓰게 된답니다.

지원의 단 한 편의 글 ‘사랑이란 무엇인가?’는 제목도 내용도 어찌나 강렬하고 아름답든지요. 시적 여운이 깊게 남습니다. 사랑을 질문하고 탐구하는 독백 같은 글은 지원이 얼마나 사랑에 재능이 많은 사랑 천재인지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다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글쓰기를 통해 나의 감정, 느낌, 생각, 욕망에 대해 정리해 보자, 내 감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남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감정에 대한 소유권, 삶에 대한 해석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데 ‘글쓰기’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랑에 재능이 많은 그대들이니, 어렵히 잘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랑을 담아 은유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있지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발행인 조은희

편집 김주아

저자 지유, 내일, 로즈

글을 선물해준 사람 추상아, 은유

전화 02-338-356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메일 yeolim@sisters.or.kr

편집 디자인 아리에뜨(ariette.co.kr)

표지 일러스트 다운타운믹스주쓰(DOWNTOWN MIX JUICE)

